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잔인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전쟁도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도 아닌데 거대한 여객선인 세월호의 침몰로 하루아침에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인재(人災)의 중첩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조선업계 1위, 세계경제 15위, 실질 경제력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정말 어이없는 사고와, 체계도 없이 허둥대는 구조는 안전의식과 재난대응에서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초대형 안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사과를 해야 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전의 대형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법과 원칙과 책임이 무시되어 일어난 사고임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과 원칙을 경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이런 후진형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덕클럽의 회원 우리 모두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동안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연구실은 안전한지,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는 사고에서 안전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사고예방과 대처는 투철한 책임의식 아래 실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체질화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효율과 편리라는 미명 하에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만 나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곳곳에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대덕클럽의 회원들 모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각자의 분야에서 원칙을 따르고 남을 위한 배려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말은 바 각자의 역할을 실천하고 자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29일 (사) 대덕클럽